아브라함 증후군

(창25:1~18)

5.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7.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8.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 증후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아브라함 증후군'
증후군이라는 말과 연관 지어서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베르테르 증후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괴테의 소설의 주인공이 베르테르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인 로테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권총으로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소설이 19세기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설의 주인공인 베르테르처럼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비유적으로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하지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 동조하여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또,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로잡힌 인질이 인질범에게 저항하거나 정신적으로 거리를 두고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현상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붙잡고 있는 인질범에게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고 동질감을 갖게 되는 그런 증후군을 말합니다.
또, 스탕달 증후군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데 이 분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산타크로체 성당에서 '베아트리체 첸지'라는 작품을 보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황홀경을 체험했다고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는데, 여기서부터 스탕달 증후군이 생겼습니다.
아주 뛰어난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보고 순간적으로 정신적인 충동을 느낀다든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심할 경우에는 자기를 상실하고 정서가 혼란되고, 의기소침하여 자신감을 상실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스탕달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요. 리플리 증후군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 이미 자기가 도달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그런 상황에 도달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 속의 실제 인물로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써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증후군을 남기고 죽습니다.
아브라함 증후군이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무심해서가 아니라,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제단 쌓기와 에셀나무 심기 등의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주인공을 따라서 죽음에 동조하는 베르테르 증후군과 다른 것은, 마음을 연예인이나 유명인,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요새는 목사님들을 향해서도 팬이라고 해요. 목사님의 팬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 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스톡홀름 증후군은 나를 사로잡은 인질범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인데, 다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저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마귀에게 동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스탕달 증후군은 마음을 아름다운 작품에 빼앗기고 아름다운 자연에 빼앗깁니다.

이것도 마음을 다 빼앗기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은 그렇게 좋아하는 꿈과 이상과 비전에 마음을 빼앗겨서 왜곡되고 틀어지고 나면 리플리 증후군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이 사회의 구조 안에서 삶의 상황에서 이루어 낼 수 없을 때에 리플리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믿어버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지요. 비전과 꿈에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증후군은 뭡니까?
마음을 빼앗기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베르테르 증후군처럼 유명한 사람, 인기 연예인,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스탕달 증후군처럼 눈에 보기 좋은 이 땅에 것들에게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꿈과 이상이나 미래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증후군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지는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제단에서 죽여 가며 사는 삶입니다.

에셀나무가 뭡니까?
사막에서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입니다. 사막은 생명현상에 가장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아브라함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어디에 두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이 땅의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죽느냐 사느냐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베르테르 증후군처럼 매력적인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스탕달 증후군처럼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을 끄는 세상, 리플리 증후군처럼 이루고 싶은 미래의 꿈과 비전이 없을 수가 없는 세상을, 아브라함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이것을 다 사막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면 내 생명이 죽어버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현상에 가장 적대적인 사막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이 있고 숲이 있지만 그곳을 사막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까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상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됩니다. 후처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여섯 아들의 이름과 손자들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서 다 내보내고, 오직 이삭만 남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상해 보이는 것이 뭐냐?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이 결국은 아람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 북부로부터 팔레스타인 동부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북부까지 이르는 지역에 퍼져있는 아람자손들의 조상들이 되고,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랍 사람의 조상들이 됩니다.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들이에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을 안 알려줬을까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뒤의 역사를 보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손들 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변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어지고 더군다나 야곱과 에서로 나뉘었을 때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나마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 교육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 했을까 하는 문제가 문제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문제제기에 답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한 마디로 말하면 구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분해내는 것인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분해냅니다.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이나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회교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분이 없으면 성취가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언약의 자손으로 구분됨이 없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일치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의 재현일 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그 구분되기 위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차별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동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이 언약의 자손으로 차별화가 없어진 상태에서 밀가루 반죽처럼 뭉치고 화합하는 것은 아브라

함 자손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차별화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 증후군이라는 것이에요.
베르테르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 스탕달 증후군 등 모든 증후군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라면, 아브라함 증후군은 이 모든 증후군과 다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난 뒤에 마음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으니까 빈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언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간 삶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증후군에 걸린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자식을 주겠다. 내가 아내를 지켜주겠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일을 잘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목회를 할 때에도 어떻게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느냐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번성되는데 다 하나로 끌어 모으면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끌어안고 있지를 않고 이삭만 남겨놓고 다 내보냅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날까봐 미리 다 정리하고 이삭 하나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삭 하나에게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신앙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회한다고 할 때에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하느냐?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분해내기 위한 차별화 작업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구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200만 명 이상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이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이 사막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아브라함 증후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 증후군을 보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이라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정탐 보고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봅니다.
똑같이 할례 받았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할례 받은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다윗은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골리앗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적이지만 일종의 베르테르 증후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저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그에게 동화되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죽은 상태이고 이삭과 야곱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만 모인 공동체예요. 이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독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다는 겁니다. 마귀가 너희들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그대로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을 보고 듣고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고 있고, 이 땅의 무엇인가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스톡홀름, 스탕달, 베르테르, 리플리 증후군 등 어느 것인가에 걸려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는 말을 할 때에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 믿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나타나든지 스탕달 증후군으로 나타나든지 리플리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식이 죽어서 살맛이 안 난다면, 이게 바로 베르테르 증후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로 동조가 되고 공감이 되고 동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갈라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골라냈습니다.
마3:9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갈라내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시 갈라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부터 갈라내는 겁니다.
목사님 중에서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건축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쓰자.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다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로 설교하고 거짓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내는 기준이 뭔가?
갈라디아서 3: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뭐가 눈 앞에 밝히 보여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지금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현재도 지금이고, 조금 후에도 지금이고, 더 지나도 지금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보면서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7절에서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에 현재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 됨의 기준이 됩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서 십자가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베르테르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 스탕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 등에 걸려서 이 땅에 마음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건이라고 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현재의 내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지금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놓인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당신의 주체성을 표현해 나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삶이고 아브라함 증후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른 증후군에서부터 건져내서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만 밝히 보면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것이다.’
이것 하나 하자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 증후군이 마음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증후군이 나타난 삶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고 십자가 대신에 제단 쌓기를 하고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고향을 떠나고, 떠나기 전부터 아내 사라를 마음에서 떼어내고, 롯과 분가할 때에 그 당시 그렇게 중요한 땅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고,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전리품을 베푸는 왕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근거된 재물만 받기로 작정했으니 다른 사람이 호의로 베푸는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마음에

서 죽여 버립니다. 며느리를 구할 때에도 눈과 귀와 입을 봉쇄해버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증후군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이 아브라함 증후군이 우리에게서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분들은 목회를 성공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마음에 보이게 해야 합니다. 자꾸 다른 것을 신경 쓰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마음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일에만 주력하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십자가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밝히 볼 수 있어야 해요. 자식 기르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때문에 염려되는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떨쳐내는 기도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없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살던 방식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한해 내내 온전히 아브라함 증후군으로 꽉 찬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이 현재화되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마음이 살아있음으로 내게서 끊임없이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